

# “아빠와 함께 달리니 게임보다 재밌어요”

영광 흥농중 2학년 최종인군  
아빠 선물 유혹에 시작  
도전하며 자신감 얻어



최종인군과 아빠 최성준씨가 3·1 마라톤대회에서 하프코스를 완주한 뒤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최종인(영광 흥농중 2년)군에게는 14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길이었다. 하지만 아빠와 함께 해서 든든했던 길이기도 했다.

최근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하프코스 출전을 위해 1일 오전 일찍 아빠와 영광에서 광주로 달려왔다. 첫 하프 코스 출전이었지만 1시간 50여분 만에 완주에 성공했다. 상기된 얼굴로 밝힌 최군의 완주 소감은 “오기 싫었어요”였다.

밖에서 달리고 노는 것보다는 게임을 하는 게 더 좋은 요즘 학생. 아빠는 “완주를 하면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며 아들을 유혹했다. 그리고 아들은 마라톤의 매력에 빠졌다.

최군은 “아빠와 함께 뛰니까 좋았다. 결승선이 앞에 보일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아빠와 또 마라톤 대회에 나오겠다”며 “도전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2일 개학을 하는데 전교 10등을 목표로 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뒤에서 아들을 지켜보면서 길을 달린 최성준(47)씨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03년 마라톤을 시작한 그는 울트라 마라톤까지 소화하는 실력파다. 평소보다 낮은 결음으로 완주를 했지만 아들과의

동행에 마음이 따뜻하다.

최씨는 “동네 대회에서 선수가 없다고 해서 우연히 마라톤을 시작했다. 뛰는 동안 모든 걸 잊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어서 마라톤에 빠지게 됐다. 기록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한다”며 “아들이

처음 뛰는 거라서 2시간30분정도를 생각했는데 너무 잘 뛰었다. (아들이) 게임 대신 마라톤을 하면서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지구력도 키워주고 싶었는데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동신대 스포츠마사지 ‘10년째 재능기부’

제 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 부상을 예방하고 피로를 풀어준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 학생들의 활약이 빛났다.

10년째 대회에 스포츠마사지 재능기부하고 있는 생활체육학과(학과장 정성필 교수) 학생들은 결승장에서 도착 선수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인기를 끌었다. 일그리진 얼굴이었던 선수들은 마사지를 받은 후 한결 개운해진 표정이었다.

이에 앞서 운동처방학과(학과장 이충철 교수)는 출발점에서 선수들에게 테이핑을 해주며 부상방지와 기록향상을 돕

기도 했다. 안민주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자격증을 보유한 학생들과 봉사 차원에서 꾸준히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게 될 학생들이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미리 깨닫고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1학년 때부터 4년째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는 이재필씨는 “학교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마라톤대회 봉사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풀코스 100회 완주 67세 김채기씨

## “이젠, 울트라 마라톤 100회 도전”

광주마라톤클럽 소속 김채기(67·광주시 동구 용산동)씨는 1일 열린 제51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4시간29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씨가 100회째 풀코스(42.195km)를 완주하는 순간이었다.

지난 2003년 지인의 권유로 마라톤을 시작한 김씨는 “매년 마라톤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3·1절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100회째 완주해 기쁘다”며 “풀코스 100회 완주 기록보다 14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다는 게 더 기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목표가 있다면 회원들과 함께 건강하게 마라톤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울트라 마라톤도 100회 이상 완주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목표가 있다면 회원들과 함께 건강하게 마라톤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울트라 마라톤도 100회 이상 완주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U대회 교육강사 김보람·김민진·이정화·양지현씨 첫 도전

## “평창올림픽도 광주처럼만”

“광주처럼만! 오늘처럼만!”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성공 개최의 주역들이 모였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로 수준 높은 U대회를 이끌었던 양지현(41)·이정화(41)·김민진(31)·김보람(30)씨. 이들은 마라톤 마니아인 김민진씨의 권유로 하프 코스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모두 기분 좋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마라톤 전도사를 자처하는 김민진씨는 “체력을 측정하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인들에게 홍보를 할 정도가 됐다. U대회에서 선수들의 열정을 지켜봤는데 내가 직접 열정적으로 뛰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지현씨는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평창 올림픽 등 다른 대회를 준비하는 곳에서 ‘광주처럼만’이라고 호평을 한다고 한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광주처럼만’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서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들어온 김보람씨와 마지막으로 질주를 끝낸 양지현씨의 완주 소감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다.

두 사람은 “2016년을 다짐하는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래도 완주를 하니 어떤 힘든 일도 잘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년만에 재도전 ‘죽마고우’ 차현호·임재현씨

## “사회로 나갈 자신감 회복했어요”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닙니다.”

1일 열린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유독 눈에 띄는 커플(?)이 있었다. 차현호(25·동강대 안경공학과 3년·왼쪽)씨와 임재현(25·광주대 스포츠레저학과 4년)씨다.

“사회로 진출하기 전 도전정신을 키워보고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힌 두 사람은 광주남초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꾸준히 우정을 쌓아온 ‘죽마고우’다. 이날 ‘커플룩’까지 맞춰 입고 나란히 하프코스를 완주했다.

둘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3·1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 있다. 당시 6명의 친구와 함께 10km 코스에 도전했는데, 차씨

와 임씨만 완주에 성공했다고 한다.

차씨는 “그때가 벌써 13년 전”이라며 “옛 추억을 떠올리다가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추억을 쌓기 위해 마라톤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마라톤 완주를 경험하자 곧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은 ‘커플룩’을 입고 마라톤대회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씨는 “졸업을 앞두고 마음을 잡기 힘들었는데, 친구 덕분에 자신감을 회복했다”며 “체력을 키워서 내년에는 한호랑 3·1절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풀코스·하프코스 부문별 우승자

## “유서깊은 3·1 마라톤 5회 우승 상금은 대전체고 장학금으로”

풀코스 남자 김수용씨

“유서깊은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5번째 우승을 달성해 기쁘이 더합니다.”

대전에서 달려온 마라토너 김수용(40)씨가 남자 풀코스 결승테이프를 가장 먼저 끊었다. 이와 함께 김씨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 5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김씨는 “전날 눈발이 날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김씨와 3·1 마라톤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승 트로피만 5개를 가져갔고, 준우승도 2번이나 대회의 소문난 실력자이자 단골손님이다.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온 대회는 부활한 도심 코스로 더욱 매력적이다.

그는 “한 대회에서 5번 우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를 기념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전체고 신입생을 돕는데 상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새벽 2시 출발에 컨디션 난조 ‘5연패 고수’ 덕분에 극복했죠”

풀코스 여자 이선영씨

“광주에서 개인최고기록을 세우고 우승까지 하는 등 좋은 기억을 만들고 갑니다.”

2시간56분18초로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여자 풀코스 우승을 차지한 이선영(39·경기도 일산)씨는 “새벽 2시에 출발한 까닭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우승까지의 생각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우승은 이번 대회 최고 이변으로 꼽힌다. 마라톤 경력은 10년 이상이지만 본격적인 기록 경쟁에 나선지 3년이 채 안 되는 이씨가 지난해까지 대회 5연패를 달성한 이정숙씨를 6초 차이로 이긴 것이다.

“워낙 잘 뛰시는 분이래 많이 긴장했다. 이정숙씨 덕분에 한계를 극복하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한 이씨는 승총보 코스를 최고로 꼽았다.

“광주는 몇 번 안 적었지만 코스를 뛰어보는 건 처음이다. 전반적으로 힘든 코스였다. 그래도 강을 끼고 달리는 승총보 코스가 인상적이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도심 달리는 코스 환상적 한국서 오래 달리고 싶다”

하프코스 남자 데이브 피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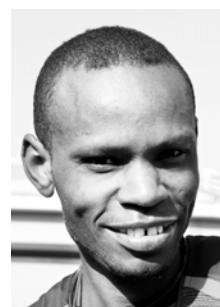
“도심을 달리는 최고의 코스였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처음 출전한 케냐 출신의 데이브 피터(28·안산와마라톤클럽)씨가 눈부신 질주로 하프 코스 남자 부문 우승자가 됐다. 출발 후 4km 지점에서 선두로 치고 나온 그는 1위 자리를 지키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안산에서 홀로 먼길을 온 그는 “5년 전에 한국에 왔다. 많은 대회에 참가했는데 3·1 마라톤은 처음이다. 마라톤 사이트에서 대회 정보를 접하고 오게 됐다”며 “도심을 달리는 코스가 환상적이었다. 도시도 깨끗하고 진행도 훌륭했다. 3·1절의 의미도 알고 있다. 기대보다 기록이 좋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케냐에서 마라톤 아카데미에 다녔다. 한국에서 마라톤을 통해 많은 친구를 만났다. 한국에서 오래오래 좋은 사람들과 달리고 싶다”고 미소를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대회 3연패 믿어지지 않아 올해 기분좋은 질주의 시작”

하프코스 여자 류승화씨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하프코스 여자부 우승자 타이틀은 올해도 천안에서 달리는 류승화(38)씨가 차지했다.

지난 2014년 대회 첫 출전부터 우승한 류씨는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먼저 하프 코스 결승선을 끊으며 3·1 마라톤 3연패라는 값진 기록을 달성했다.

그는 “대회가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치러졌지만 대회 진행이 매끄러워서 그런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면서 “특히 교통 경찰분들의 완벽한 도로통제, 도시를 가로지르는 코스에서 오는 짜릿함은 광주일보 3·1 마라톤만의 매력”이라고 평가했다.

류씨는 “올해도 참가접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서둘러 신청서를 냈다. 운 좋게 3연패까지 하게 돼 뿌듯하다”면서 “3·1 마라톤 우승을 시작으로 올 해도 기분 좋은 질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